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3월 생산자 물가 연율 2.1% 상승... 일부 품목은 둔화
- CNBC: 골드만삭스 “미 물가 향후 수개월간 크게 감소” 전망
- Bloomberg: 뉴욕연방은행총재, “연준, 가까운 시일에 금리 인하할 필요 없어”
- Bloomberg: 연방 예산 적자, 회계연도 상반기에 1조7천억불

[미국 금융]

- CNN Business: 은행들, 기후 공약 지킨다고 하지만 ‘비효율적’
- Bloomberg: 채권 거래자들은 5% 국채 수익률에 대비하고 있다.

[뉴욕]

- Bloomberg: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하락

[미국 생활]

- CNN Business: 연방 우체국 우표 7월부터 다시 오른다

[인공지능]

- WSJ: 아마존 CEO, “AI는 혁신적인 기술 변화”

[오일]

- Bloomberg: OPEC, “여름 수요 예상 속 석유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미중 경제]

- Bloomberg: 중국 인플레이 주춤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델타항공, 비즈니스 여행 회복으로 예상치 상회
- CNBC: 백화점, 매장 신용카드 매출 관련 압박 직면
- CNBC: MS, 5월에 새로운 윈도우 및 클라우드 AI 기능 공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Producer Prices Rise But Show Some Relief in Key Categories

3월 생산자 물가 연율 2.1% 상승... 일부 품목은 둔화

- 3월 미 생산자 물가가 작년 동월에 비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단,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분야는 감소했다. 즉, 의료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 같은 분야는 둔화했다.
- 연방 노동부의 오늘 목요일 발표에 따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2.1% 상승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2월에 큰 상승 이후에 예상보다

낮은 0.2%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CNBC: Goldman still expects U.S. inflation to fall significantly as markets alarmed by recent rise

골드만삭스 “미 물가 향후 수개월간 크게 감소” 전망

- 3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작년 3월 비교해 연율로 3.5% 상승했다.
-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베팅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향후 수개월간 미 인플레이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즉, 소비자물가지수는 현재의 3.5%에서 올해에 2.4%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관계자는 “유가가 주요 인플레이 요인이지만 그 여파는 제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CNBC 기사

Bloomberg: Fed’s Williams Says No Need to Adjust Rates in ‘Very Near Term’

뉴욕연방은행총재, “연준, 가까운 시일에 금리 인하할 필요 없어”

- 뉴욕연방은행총재인 John William은 연준이 인플레이와 고용의 두 목표 사이에 놀라운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연준이 가까운 시일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 그는 인플레이가 연준의 목표치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고 하면서 통화 정책이 좋은 상황이고 노동시장도 견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Budget Gap Hits \$1.07 Trillion in First Half of Fiscal Year

연방 예산 적자, 회계연도 상반기에 1조7천억불

- 올해 3월까지 2024년 연방 회계연도 6개월 동안 미 예산 적자가 늘어났다. 부채 상황 비용이 올라가는 탓이다.
- 해당 6개월간 부채는 1조7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캘린더 차이를 조정할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가 더 커졌다.
- 이러한 대규모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부채 상승의 주원인이다. 지난 상반기 6개월간 이자 비용은 작년보다 36% 늘어난 5천2백20억달러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부채 증가의 원인도 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CNN Business: Banks say they're meeting climate pledges. A new report says they're ineffective****은행들, 기후 공약 지킨다고 하지만 '비효율적'**

- 세계의 대형 은행들이 기후 변화 관련해 약속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지만 유럽중앙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그같은 약속은 실제 시행보다는 말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그들은 불과 2년전에 글래스고에서 만나 기후 변화 개선을 위해 1백30조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약속으로 나타난 것이 연합체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
- 이들 연합체에 가입한 은행들은 탄소 사용이 많은 회사에 대한 용자 이자율을 올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용자를 받는 은행들은 탈탄소에 대한 목표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Bond Traders Are Preparing for a 5% Yield, No Rate Cut World**채권 거래자들은 5% 국채 수익률에 대비하고 있다.**

-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면서 채권 트레이더들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상승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 전 세계 시장들이 중앙은행들의 지속적인 고금리 정책에 대응하면서 오늘 목요일 글로벌 수익률은 상승했다.
- 미 2년물 국채 수익률의 경우 지난 11월 이후 처음으로 잠깐 5%를 돌파했고, 10년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바로 지난 세션에서 4.5%를 상회한 후에 4.58%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뉴욕]**Bloomberg: Manhattan Apartment Rents Dip in Sign Market Is Stabilizing**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 하락

- 맨해튼 아파트 임대료가 수개월간 상승한 후에 3월에 예기치 않게 하락했다. 물론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는 신호라고는 아직 볼 수 없다.

- 새로운 임대료는 작년보다 1.8% 줄어든 중간치가 4천1백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베이스로 볼때 4개월 만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통적으로 여름으로 향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의 이례적인 상황(임대료 하락)이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N Business: The US Postal Service wants to hike stamp prices again in July. Here's how much you'll pay 연방 우체국 우표 7월 부터 다시 오른다

- 연방 우체국이 한번 사놓으면 가격 변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Forever' 우표를 68센트에서 73센트로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연방 우체국의 적자 때문이라는 것.
- 이 방안에 연방우편규정위원회에서 통과되는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우편 서비스 비용이 거의 8% 오르는 셈이 된다. 우표 가격은 50센트였던 당시인 2019년 이래 36%가 상승했다.

CNN Business 기사

[인공지능]

WSJ: Amazon CEO Touts AI Revolution While Committing to Cost Cuts 아마존 CEO, "AI는 혁신적인 기술 변화"

- 아마존의 CEO Andy Jassy가 "수십 년 안에 생성형 AI가 가장 혁신적인 기술 변환이 될 것"이라 말했다.
-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Jassy는 마켓플레이스, 프라임, 그리고 자체 컴퓨팅 부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어, 생성형 AI가 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아마존은 이사회에 AI 전문가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 "생성형 AI는 클라우드, 그리고 인터넷 다음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전환이 될 것"이라고 목요일 서한에서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 혁명은 클라우드 위에 구축될 것이며, 해당 기술에서 비롯된 사회적, 비즈니스적 혜택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WSJ 기사

[오일]

Bloomberg: OPEC Says Oil Needs Close Monitoring Amid Robust Summer Demand

OPEC, “여름 수요 예상 속 석유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OPEC은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수요 급증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시장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석유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 생산자 그룹은 3분기에 하루 2백70만 배럴의 연간 증가를 예상하면서,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예측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의 주요 지표들은 석유 소비가 예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였으며, 올여름 유가가 1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편 감산 참여국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필요시 시장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미중 경제]

Bloomberg: China Inflation Stalls as US Speeds, Adding to Pressure on Yuan

중국 인플레이션 주춤

-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산업 물가도 계속 하락하여, 중국 경제 회복의 주요 위협 요인인 디플레이션의 압박을 부각했다.
- 목요일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0.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2월의 0.7%에서 하락했다. 생산자 물가 지수도 18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 물가 하락은 해외 제품 판매에 의존하여 성장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목표에, 현지 쇼핑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나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세계 경제 양대국 간의 금리 격차가 지속되어 위안화에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Delta's Outlook Tops Estimates on Revival of Business Travel

델타항공, 비즈니스 여행 회복으로 예상치 상회

- 델타항공의 2분기 영업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 여행 및 안정된 레저 수요의 증가에 혜택을 받은 것.
- 델타항공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2.20달러에서 2.50달러의 조정 이익을 발표하며, 예상보다 양호한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발표된 조정 이익의 중

간값은 블룸버그가 집계한 에너지스트 예상치 평균인 2.23달러보다 높은 수치이다.

Bloomberg 기사

CNBC: Department stores face another squeeze. This time, with store credit card revenue

백화점, 매장 신용카드 매출 관련 압박 직면

- 메이시스와 콜스 등의 백화점은 오랫동안 매장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 유도 등을 해왔다.
- 하지만 올봄부터 매장 신용카드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고객의 연체 수수료가 업계 평균인 약 32달러에서 8달러로 제한될 예정이기 때문.
- 새로운 규정은 연체된 잔액이 있는 고객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와 미납 잔액에 부과되는 이자 및 연체료로 수익을 창출해온 소매업체에게는 타격을 줄 것이다.

CNBC 기사

CNBC: Microsoft will unveil new Windows and cloud AI features in May MS, 5월에 새로운 윈도우 및 클라우드 AI 기능 공개

- 수요일 게시된 세션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 컨퍼런스에서 PC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AI 도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 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 CEO Satya Nadella는 “2024년은 모든 PC에 AI가 활용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월의 컨퍼런스 일정은 이러한 목표가 반영된 것.
-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AI 모델을 운영하는 고객으로부터 상당한 수익 성장을 보고했으며, 개발자를 위한 새로운 AI 기능을 출시하여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CNBC 기사

美 기준금리 불확실성 고조...시장서 6월 인하 전망 '반반'

일각선 연내 인하도 의문...JP모건 회장 '美금리 8% 이상' 시나리오 언급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여전한 가운데 고용시장까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한때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물론 연내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6월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인 5.25~5.50%에 머무를 가능성이 한때 50.1%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26.6%)이나 일주일 전(42.1%)보다 올라간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